

가족이라는, 부분 그리고 전부

우리의 삶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끝을 맺는다.
가족이 곧 ‘나’를 정의하진 않지만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
가족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선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글 편집실



이중섭(1916~1956)

한국 근대서양화의 거목. 시대의 아픔과 굴곡 깊은 삶을 ‘소’라는 모티프로 풀어냈다.
대담하고 거친 선이 특징이다.



66

가족을 빼고는 쓸 만한 소재를
생각할 수 없다. 가족은 다른 모든
사회 영역의 상징이다.

- 풀리처상 수상 베스트셀러 작가, 안나 퀴드렌

99



김덕기(1969~)

한국을 대표하는 색의 마술사. 다채로운 색채와 굵직한 질감으로
가족애와 행복, 자연풍경 등을 작품으로 구현한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을 말하는 화가가 있다. 이중섭이
다. 그는 민족의 한과 아픔이 가득하던 20세기의 한국을 대표
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피
난길에 오른다.
오랜 피난 끝에 제주 서귀포에 터를 잡았다. 단칸방에서 맨밥
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지만 그에게 서귀포에서의 1년은 ‘행복
한 기억’ 가득했던 값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겐 달
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고 그때부터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풀
어냈다. 그림 속 행복한 모습의 가족,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
실. 그는 꿈속에서야 비로소 행복을 만난다.

또 한 명의 화가가 있다. 우리와 함께 숨쉬는 화가 김덕기는 오
늘날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 그의 작품 속에는 부모와 아이
가 함께 살고 웃고 뛰어 논다. 그의 그림을 보면 잊고 지내던 옛
추억이 떠오른다.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갔던 설렘, 나
의 아이를 꼭 끌어안았던 충만감. 그의 그림 속엔 어린 날의 행
복, 가족과의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별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왜 나의 부모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나의 형제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깨닫는다. 그 낯날의 존재와 순간
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